‘쓰쓰가무시’ 5년새 3배 급증

광주·전남 가을철 야외활동 ‘주의’

가을철 벌초와 추수 등 야외활동이 늘고 온난화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에 쓰쓰가무시증(tsutsugamushi fever)이 5년 새 3배 이상 급증, 주의가 요망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02년 광주·전남지역에 312건에 불과했던 쓰쓰가무시증이 ▲2003년 307건 ▲2004년 682건 ▲2005년 936건 ▲2006년 908건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올 현재 발병 건수는 21건(전국 116건)이다.

전국적으로는 2002년 1천919건이던 게 지난해에는 6천489건으로 3.4배나 증가했다. 쓰쓰가무시증으로 인한 사망자는 2002년 이후 35명으로 광주·전남에서는 4명이 숨졌다.

전문가들은 쓰쓰가무시증이 급증한 이유가 온난화 및 기온 상승으로 질병 매개체인 털 진드기의 활동시기가 10월에서 11월까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쓰쓰가무시와 같은 가을철 열성질환(熱性疾患·고열을 동반한 질환)인 렙토스피라(leptospirosis)의 경우 ▲2002년 41건 ▲2003년 54건 ▲2004년 51건 ▲2005년 28건 ▲2006년 26건 ▲2007년 현재 1건 발생했다.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은 ▲2002년 51건 ▲2003년 63건 ▲2004년 47건 ▲2005년 63건 ▲2006년 52건 ▲2007년 현재 6건 등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숲이나 풀밭에서의 활동을 삼가고 농민이나 벌초객, 등산객 등은 진드기에 물린 상처가 있거나 야외활동 후 발열·오한·두통 등의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받을 것을 당부하고 “야외활동을 할 때 긴 옷·토시·장화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사용한 작업복을 잘 세척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

▲쓰쓰가무시증=9~11월 사이에 집중 발생하는 3군 법정 전염병. 리케치아(rickettsia)의 일종인 ‘리케치아 쯔쯔가무시’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털 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어서 걸리게 된다. 감염 후 보통 10~12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 두통·발열·오한·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1cm 크기의 피부 반점이 생긴다.

조선대 총장 전호종 교수 당선

제13대 조선대 총장 후보로 전호종(53·의과대학 의학과)교수가 당선됐다.

전 교수는 13일 조선대 체육관에서 치러진 총장 후보 선거 결선투표에서 총 유효표 687표(총원 748표) 가운데 389표를 획득, 298표에 그친 서재홍(58·의과대학 의학과)교수를 누르고 총장 후보에 당선됐다.

광주 동신고와 조선대 의대를 나온 전 교수는 조선대 부속병원 부원장, 조선대 의과대학 학장, 대한병리학회 호남지회장, 방사선응용 진흥센터 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의과대학 학장 재직 시 싸이클로트론연구소와 기초내성세포연구센터를 유치해 의대발전에 기여했고, 동문을 상대로 기금을 모아 지금은 광주의 명소가 된 ‘조선대 장미원’을 조성해 학교에 기증하는 등 총 27억원의 발전기금을 모금했다.

지난 2003년 제12대 선거에 출마해 1차 투표에서 2위를 차지, 김주훈 현 총장과 결선투표에서 맞대결했으나 302표를 획득해 30표 차이로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미래지향적 대학경영 마인드’를 앞세워 교수·학생·교직원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아 4년 만에 총장 후보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조선대 13대 총장으로 당선된 전호종 교수. /나명주기자 mj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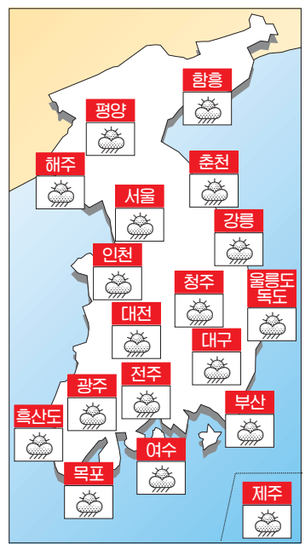
전 교수는 법인 이사회 인준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10일 취임하며 임기는 4년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가을 비바람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다.

9월 14일 (음 8월 4일) ◇전국날씨

광 주	흐리고 비	21~24℃
목 포	흐리고 비	21~24℃
여 수	흐리고 비	21~24℃
완 도	흐리고 비	20~25℃
구 례	흐리고 비	21~24℃
해 남	흐리고 비	20~25℃
장 흥	흐리고 비	20~25℃
고 흥	흐리고 비	20~24℃
순 천	흐리고 비	20~24℃
영 광	흐리고 비	20~25℃
진 도	흐리고 비	19~23℃
전 주	흐리고 비	20~25℃
남 원	흐리고 비	19~24℃
흑산도	흐리고 비	21~22℃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5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2.0~3.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2.0~4.0m

목 포 밀물 03:37 15:56 썰물 08:53 21:10
여 수 밀물 10:29 22:35 썰물 04:13 16:26

▲해뜸 06:14 ▲해짐 18:42 ▲달뜸 08:33 ▲달짐 19:4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5(토)	16(일)	17(월)	18(화)	19(수)	20(목)
날 씨						
최저/최고	20/24	19/27	20/25	21/24	19/27	18/28

태풍 ‘나리’ 북상…내주초까지 비

열대저압부와 태풍의 영향으로 다음주 초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4일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대기가 불안정해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다”며 “예상 강수량은 30~60㎜로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3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또 “13일 오후 3시께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660㎞ 해상에서 제11호 태풍 나리(NARI)가 발생해 시속 22㎞의 속도로 북서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16일부터는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전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또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으니 차량을 운전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4일 오전을 기해 남해서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고, 해상에서는 파도가 2~4m로 높게 일 것으로 보인다. /김여울기자 wool@

“체전 앞두고 정화 앞장서겠습니다” 광주시 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백남길)는 13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제88회 전국체전’에 대비한 도로 환경정비 발대식을 가졌다. 회원 1천여 명은 발대식 후 5개 구 의용소방대별로 나눠 짚봉터널·염주체육관·풍암저수지 등 주변 도로에서 쓰레기·담배꽁초 줍기, 잡초 제거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2008 수능 58만4천여명 지원

광주·전남은 3만4천명

오는 11월 15일 치러지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두 58만4천890명이 지원, 2007학년도의 58만8천899명에 비해 4천9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1만8천317명과 1만5천993명이 지원해 지난해보다 각각 106명과 238명 늘었다.

1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재학생 지원자는 전년보다 2만1천186명 증가한 44만6천582명으로 전체 지원자의 76.3%를 차지했다. 졸업생은 전년보다 2만5천9명 감소한 12만6천688명(21.7%), 검정고시 등은 186명 줄어든 1만1천620명(2.0%)이었다.

광주는 재학생이 1만4천920명(83%)으로 전년에 비해 1천362명 늘었고, 전남도 1만4천401명으로 948명 증가했다. 재수생은 각각 1천224명과 678명 줄었다.

입시 전문가들은 재수생 지원이 많이 줄어든 것과 관련, “올해 ‘수능 등급제’적용에 따른 변별력 약화를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영역별로는 전체 지원자 중 언어영역이 58만3천733명(99.3%), 수리영역 53만7천695명(91.9%), 외국어(영어) 영역 58만2천953명(99.7%), 탐구 영역 58만608명(99.3%), 제2외국어/한문 영역 9만9천492명(17.0%) 등이다. 수리 영역 지원자 53만7천695명 중 수리 ‘가’형 지원자는 12만8천286명(23.9%)으로 수리 ‘나’형 지원자(40만9천409명, 76.1%)를 크게 밑돌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능력위주 인재 고루 등용 민족대학 긍지 살리겠다”

■ 전호종 총장 당선자

— 당선 소감은.

▲전임 총장들로부터 총장이 되면 딱 두 번 기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총장 후보로 당선될 때와 총장 임기가 끝나 총장실을 떠날 때다. 4년 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총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기쁜 마음으로 임기를 마치겠다.

— 재임 중 역점 추진 사항은.

▲대학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소득 2만 달러,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기 위한 근간은 교육이고 젊은이들이 세계인과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대학에서 뭘 보고 배우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을 중시하겠다.

2018~23년 대학 학령인구가 60만명에서 40만명으로 3분의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지키고 조직구성원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위기에 대비하겠다.

— 조선대의 비전은.

▲조선대는 1946년 당시 고등교육기관이 없던 지역 현실을 감안해 7만2천여명의 설립동지들이 뜻을 모아 세운 민족대학이다. 2046년이면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39년 이후 조선대가 호남지역에서, 국내에서, 세계에서 어떤 위상과 위치를 갖게 될 것인지 염두에 두고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 조직 화합 방안은.

▲총장은 명예직이 아니다. (이번에 출마한) 후보 모두 대학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꼈다. 대학 발전을 위한 동지로 생각한다. 나는 나를 도와준 사람들의 총장일 뿐 아니라 나를 비판하고 반대한 모든 사람들의 총장이다. 능력위주로 인재를 고루 등용하겠다. /황태종기자 hwangtae@

효령동 자연葬 이름은 ‘청마루 동산’

광주시 최우수작 선정

광주시는 13일 북구 효령동 영락공원에 들어설 자연장(自然葬) 시범지역을 ‘청마루 동산’으로 부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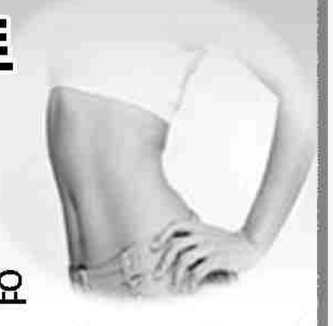
광주시는 이날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자연장 시범지역 명칭 공모에 참여한 126개 명칭 가운데 ‘청마루 동산’을 최우수작(이형호씨·서구 치평동)으로, ‘하늘동산’(한병희씨·북구 용봉동)은 우수작으로 선정했다. ‘청마루’는 푸를 청(靑)과 마루(하늘)의 합성어로, 푸른 하늘에 고인을 모신다는 뜻이 담겨있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나무·화초·잔디 등의 밑 또는 주변에 묻어 유골이 쉽게 자연에 동화되도록 하는 장례 방식이다.

시는 13억9천만원을 들여 다음달부터 영락공원 내 8천700여㎡ 부지에 자연장 조성사업에 들어가 내년 6월 완공하기로 했다.

시는 ‘청마루 동산’을 잔디장·정원장·가족장지 등으로 구분·시공하며, 권역별 입구에는 사망자와 유족 등을 기록한 표식만 설치할 계획이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새롬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광주본원 [서구청앞 농성동] 361-8111
분원 [계림동 구시청사거리(중흥동)] 529-8111
문제풀이 실전(동형)모의고사문제풀이(특수프린트물) 과목별 전범위에 걸친 문제를 매일 풀면서 시간 배분과 실전문제풀이 테크닉을 습득하는 과정
기본서 특별반 기초없는 분을 위한 강의
개강 9月3日(주,야) www.gjserom.com
●전국 합격률 1위! 학원! 전국 25개 체인 학원!
●서울새롬행정고시학원 광주상륙 5년(최고 합격자 배출)!
●저자 직강!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국비무료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교육비환급 ☎529-8111(개강일 전 접수바람)
공인중개사전문! 전국합격률 1위!
새롬 행정고시학원 ▶서구 농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바로 옆 도영빌딩 본원 361-8111
새롬 공인중개사전문학원 ▶계림동 구시청사거리 대한일보 옆 청송빌딩 6층 분원 529-8111

지리산한약방 다이어트
다이어트·전립선염·조루·허리디스크
※자세한 자료는 지리산한약방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NAVER 검색창에 지리산한약방 을 쳐보세요
문 의 (062)531-3636, 531-0700 / 523-4600, 011-9612-5530


발견 우리나라에 기적이 일어났다!!
동방 불로초
불로초는 풀이 아니고 물이었음
올 추석선물은 “동방불로초”로!
나이 많은 어르신,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에게 최고의 선물!!
=시판기념 특별 할인판매=
500㎖들이 24병 (1박스) 38,000원
900㎖들이 24병 (1박스) 58,000원
배송료 무료
◉입금계좌 (농)641076-51-025857(김현영)◉
※입금 후 전화주시기 바람
천지영천수식품 070-7012-0246
www.cjyc.co.kr (017) 291-3115

마술(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감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아이큐 향상을, 성인에게는 개인의 장기자랑 및 취미생활로 활용하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회봉사차원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입니다.
✣ 모 / 집 / 대 / 상 ✣
• 유치원, 초 · 중등교사로서 수업에 활용하실분
•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 마술에 관심있는 초 · 중 · 고등생 및 일반인
•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응용
• 비지니스를 위한 영업전략에 활용하실분
• 초 · 중등생 게임중독치료 및 발표력 향상
• 초 · 중등 특기적성 마술교사로 활동하실 분(취업추천)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 교실 특강
마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아이큐 향상 및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EQ(감성)지수도 높여준다. 특히 창작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기간 : 주1회 8주 2개월
★교 육 비 : 무료(마술도구비 별도, 개인소장)
★교육장소 : 동부경찰서뒤 무등고시학원
★접수방법 : 선착순 20명 전화 예약 접수(개인교습)
○추석에 가족친지들이 모인자리에 마술을 연출해 보세요. 즐거운 추석이 됩니다.
○각종행사, 마술 출장공연, 어린이 관련행사, 동문회, 교회행사, 야유회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526-2500